

# 오케스트라 악기와 함께 12

## 트럼펫(Trumpet)

글: 김성현 UBC 울산방송 미디어기술국 부장

### 연재 목차

- 1편. 바이올린
- 2편. 비올라
- 3편. 첼로
- 4편. 더블 베이스
- 5편. 하프
- 6편. 플루트
- 7편. 오보에
- 8편. 클라리넷
- 9편. 바순
- 10편. 색소폰
- 11편. 리코더
- 12편. 트럼펫



이 글은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있는 악기를 매회 하나씩 소개한다. 악기 소개는 개요, 구조, 종류, 뒷이야기 등의 열개로 기술되며 방송 현업 하시는 분에게 악기에 대한 이해와 교양으로써 상식을 충전하게 될 것이다.



### 금관악기를 들어가며

지금까지 목관악기와 함께한 우리는 금관악기의 세계로 접어들었다. 오케스트라의 구조는 현악기군, 목관악기군, 금관악기군, 타악기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목관악기군이 따뜻하고 금속에 비해서 부드러운 나무 소재라서 포근하고 블렌딩이 잘 되는 음색이라면, 금관악기군은 차고 단단한 금속소재라서 강하고 화려하며 도드라진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 금관악기군에는 트럼펫, 트롬본, 호른, 튜바 등이 있다. 오케스트라의 뒤쪽을 보면 웅장하고 큰 음량의 번쩍거리는 금속악기들이 있는데 바로 이 악기들이 금관악기들이다. 이 악기의 시초는 수천 년 전 동물의 뿔을 잘라서 연주한 것이며, 고대 로마 시대에는 군대에서 신호용으로 사용되어 밸브나 키가 없는 단순한 구조로 만들어졌었다. 처음에는 긴 관 모양에서 점차 둥글게 몇 바퀴 말아서 밸브도 장착하는 등 휴대와 연주가 쉽도록 개량되었다. 목관악기의

경우 호흡이 리드를 통과하면서 리드가 진동하며 소리가 발생하지만, 금관악기의 경우는 입술을 진동(버징 Bzzing)하면서 마우스피스를 통해 호흡을 불어넣어 소리를 내고 높낮이 표현은 밸브나 슬라이드 등으로 하게 된다. 특히 마우스피스의 모양새와 크기에 따라 음량과 음색이 달라진다.

금관악기의 공통적인 연주법으로는 다음과 같다.

- 싱글팅잉 : 혀로 't' 혹은 'k'를 하면서 음들을 연주하는 방법
- 더블팅잉 : 혀로 'tk tk'를 하면서 빠른 음들을 연주하는 방법
- 트리플팅잉 : 혀로 'tkt tkt'를 하면서 연주한다.
- 플러터팅잉 : 혀로 'rrrr'를 하면서 연주하는 방식으로 플루트의 그것처럼 할 수는 없지만, 부르르 떨리는 느낌의 소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 비브라토 : 풍부한 소리를 내기 위해 음을 약간 떨리게 만드는 것으로 횡경막을 사용하거나 아랫입술을 위아래로 살짝 움직여서 연주한다.
- 글리산도 : 두 음 이상에서 위 또는 아래로 빠르게 미끄러지듯 연주하는 방법으로 목관악기에서는 클라리넷처럼 금관악기에서는 트롬본이 이 주법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한다.
- 약음기를 사용하여 음량을 줄이거나 변색된 음색 연주가 가능하다.

## 트럼펫 Trumpet 을 들어가며

도전 골든벨의 원조 프로그램인 장학퀴즈라는 고교생 대상 TV프로그램이 있다. 공부 꽤나 한다는 중고생들의 로망이 그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당당히 우승하고 학교의 이름을 전국적으로 빛내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방송을 해와서인지 에피소드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서 지금도 회자하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프로그램 말미에 분위기가 무르익어 우승자가 좌우될 무렵에 진주의 한 학생이 ‘고구마’가 답인데 ‘고매’라고 얘기했다. 그 순간 스튜디오는 짜한 분위기가 감돌았으며 그것이 사투리임을 이미 알고 있는 노련한 진행자는 세 글자라고 힌트를 주었다. 그러자 잠시 고민하던 그 학생은 확신한 듯 ‘물고매’라고 외쳤고 결국 오답 처리된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그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오프닝 송으로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3악장을 사용했는데 전국의 학생들이 제목은 몰라도 한 번쯤은 멜로디를 흥얼거릴 정도로 유명했던 곡이다.



장학퀴즈 / 유튜브

이 협주곡은 요즘도 유명 연예인이 출연하는 초등학교교재의 광고 삽입곡으로 이용되는 유서 깊은(?) 곡이다. 첨부하는 동영상은 영국 출신의 예쁘고 카리스마 넘치는 앨리슨 발숨 Alison Balsom의 하이든 트럼펫 협주곡 3악장이다.

## 트럼펫의 개요

트럼펫은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왕이 등장할 때 여러 명의 악기를 든 병사가 일렬로 서서 깃발이 달린 긴 악기로 팡파르Fanfare를 연주하거나 혹은 전쟁 중에 신호용으로 사용하는 악기로 자주 등장한다. 전자의 경우에 사용하는 악기가 헤럴드Herald 트럼펫인데 깃발을 달 수 있도록 벨과 악기의 중간 부분에 고리가 두 개 설치되어 있다.



헤럴드 트럼펫 / dansr.com

트럼펫은 남성적이고 위용 있는 직선적인 사운드가 압권인 악기이다. 그래서인지 초창기엔 팡파르나 신호용으로 사용되다가 점차 악기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밸브 트럼펫이 개발되기 전에는 내추럴Natural 트럼펫이라고 하여 기다란 관으로 이루어져 오로지 입술 테크닉만으로 자연 배음열Harmonic Series을 이용해 여러 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 악기는 반음을 연주할 수 없었는데 훗날 긴 악기의 관을 구부려서 휴대하기 편하게 만들었으며, 1813년 영국의 클라켓이 밸브 시스템까지 장착하여 반음 연주까지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독주악기로서도 자리 잡게 되었으며 오늘날 가장 기본이 되는 트럼펫은 Bb 조성으로 다양한 종류의 조성악기들이 있다.

1300년대까지는 트럼펫(나팔)을 부는 음악인의 신분은 아주 낮았다.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가 되자 왕의 등장과 권위

를 표현하기 위해 안정맞춤인 악기 트럼펫을 쓰기 시작하면서 점점 신분이나 복지가 좋아졌다. 헝가리와 크로아티아의 왕 마티아스 코르비누스는 그의 궁정에 24명의 트럼펫 연주자를 고용하였다고 하니 예전의 나팔수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야말로 나팔수들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서 꿈의 의미는 다르겠지만 첨부하는 영상은 올림픽 팡파르 Bugler's dream(Leo Arnaud 작곡)과 존 윌리엄스 작곡 1984년 LA 올림픽 팡파르이다.



내추럴 트럼펫 / brassforbeginners.com

트럼펫은 클라리넷, 색소폰, 호른처럼 대표적인 이조악기이다. 이조악기란 악보의 표기와 실제 나는 소리가 다른 악기를 말한다. 즉 악보의 도(C)를 연주하였을 때 실제 악기가 소리 내는 음을 따서 부르게 된다. 즉, Bb조 트럼펫으로 악보의 도(C)를 불면 C가 아닌 한 음 아래의 Bb 음이 발생한다. 그래서 Trumpet in Bb으로 표기하며, 원래 C음을 내는 C조 트럼펫은 이조를 할 필요가 없이 악보 그대로 연주하면 된다.

이 악기의 발성 원리는 입으로 바람을 강하게 불면서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떼게 되는데(목관악기의 리드 역할을 함)

그것이 마우스피스를 거쳐 금속관을 통과하면서 정제되고 큰 소리로 증폭되는 것이다. 여기서 입술을 이완시키면 낮은음, 경직시키면 높은음을 내게 되며 음색은 마우스피스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마우스피스의 컵이 얇을수록 높고 밝은 소리, 깊을수록 낮고 어두운 소리가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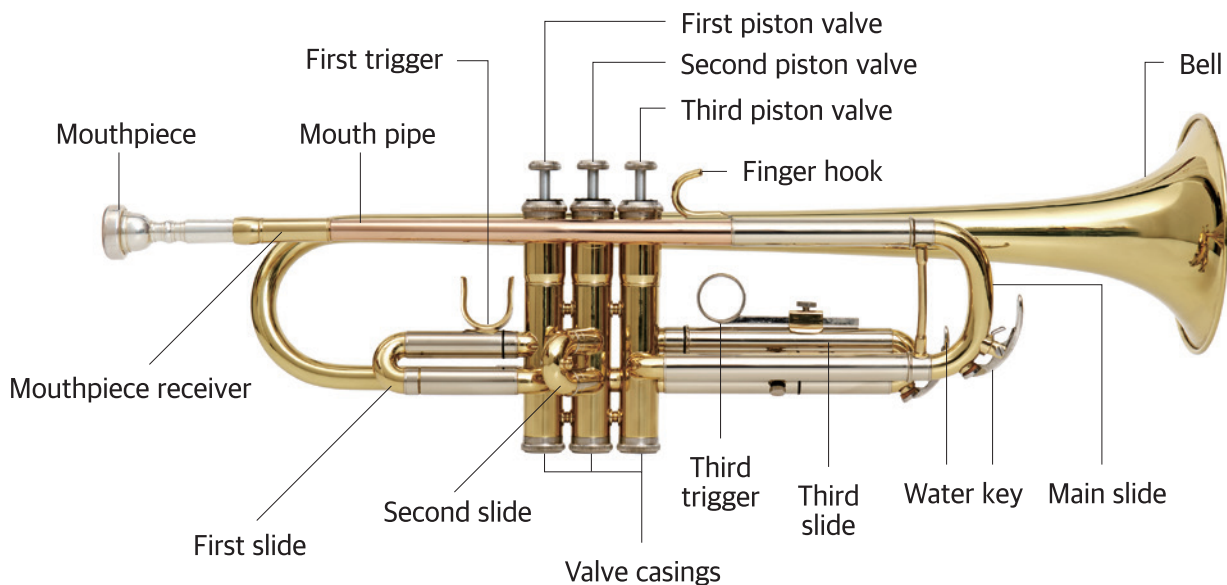
트럼펫은 오케스트라의 금관악기 중에서 가장 높은 음을 내며 독주에도 사용된다. 합주 시에 다른 금관악기들과 함께 웅장하고 큰 사운드를 내는데 동참한다. 교향악에서 현악파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쉬지 않고 연주하지만 금관악기파트는 곡의 고조되는 분위기나 극적인 부분 혹은 가장 큰 소리를 연출하는 투티Tutti(오케스트라 전원이 합주)에서 등장하며 효과를 배가시킨다.

### 트럼펫의 구조

트럼펫은 크게 악기 본체와 마우스피스로 분해되는데 세부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다.



로터리 밸브 트럼펫 / m-s-v.eu



피스톤 밸브 트럼펫의 구조 / yamaha.com

**마우스피스** : 입술을 붙이고 바람을 부는 곳으로 목관악기와는 달리 입술을 강하게 붙이고 있어야 바람이 새지 않는다. 입 모양이 사람에 따라 제각각이라 여러 가지 모양과 크기로 나오며 자기 입에 맞는 것을 찾아야 좋은 소리와 더불어 연주를 편하게 할 수 있다. 작고 얇은 것은 고음 연주에 유리하며 크고 깊은 것은 더 크고 낮은 소리를 낸다.

**밸브** : 밸브를 채용하기 이전에는 한정된 자연배음들만 연주할 수 있었으나 밸브가 개발됨으로써 반음계 연주가 가능해졌다. 밸브를 누를 때 첫 번째 밸브는 온음, 두 번째 밸브는 반음, 세 번째 밸브는 온음+반음 내려가게 된다. 주로 피스톤 밸브형을 사용하는데 로터리 밸브 트럼펫도 함께 연주하는 뮤지션도 있다. 밸브 트럼펫은 밸브에 의해 음이 먼저 결정되어 관을 돌아 나오기 때문에 소리가 부드럽고 따뜻하며, 피스톤 밸브 트럼펫은 관을 돌아 나온 소리가 밸브에 의해 결정되면서 벨로 향하기 때문에 직선적이고 날카로운 소리의 특징이 있다.

**벨** : 트럼펫 전체의 소리에 영향을 주며 림의 지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벨이 넓게 퍼져 나오는 테이퍼의 모양새와 굽기이다.

**리드(마우스) 파이프** : 반응성과 음정을 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메인튜닝 슬라이드** : 트럼펫은 금속 소재이므로 주변 온도에 따라 음정의 변화가 심하다. 따라서 이것을 조금씩 넣거나 뽑으면서 조율을 하고 하단에 워터키가 붙어 있다.

**핑거 후크** : 오른손의 새끼손가락을 고정하는 곳이다.

**워터키<sup>water key</sup>** : 금관악기에는 워터키라는 밸브가 있는데 일명 스피트 밸브<sup>spit valve</sup>라고도 한다. 이것은 맺혀있는 물방울을 빼내는 것이지 침을 빼내는 것이 아니다. 차가운 금속관에 따뜻한 입김이 들어가다 보면 물방울로 맺혀 점점 쌓이게 되는데 연주할 때 꾸르륵거리는 소리가 나면 워터키를 눌러 물을 뺀다. 간혹 TV 중계에서 오케스트라 연주 중에 쉬는 부분에서 워터키를 누르고 악기를 불면서 흔드는 장면

을 볼 수 있는데 이제는 그 행동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트럼펫의 종류

트럼펫에 속하는 악기로는 피콜로 트럼펫, 코넷, Bb조, C조 트럼펫 등이 있다. 비슷한 악기로는 플루겔호른이 있다.

### 피콜로<sup>Piccolo</sup> 트럼펫

일반적인 세 개가 아닌 네 개의 밸브를 가진 아주 작은 트럼펫으로 가장 높은 음을 연주할 수 있다. 한 옥타브가 높은 Bb조 악기이다.



피콜로 트럼펫 / yamaha.com

### 코넷<sup>Cornet</sup>

벨이 넓게 퍼져 있는 모양으로 감미롭고 부드러운 소리가 난다. 오케스트라에서는 사용되지 않으며, 마칭밴드에 많이 사용되는데 바이올린처럼 솔로 악기로서의 역할을 많이 한다.



코넷 / yamaha.com

### Bb조 트럼펫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트럼펫이다.



Bb조 트럼펫 / yamaha.com

### C조 트럼펫

말려있는 튜닝 슬라이드 부분의 길이가 더 짧아 Bb조 트럼펫보다 조금 높은 음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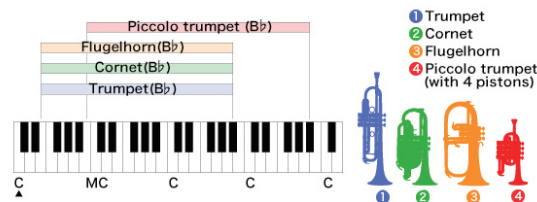
C조 트럼펫 / yamaha.com

### 플루겔호른

트럼펫보다 큰 사이즈의 악기로 마우스피스와 컵도 더 깊어서 둥글둥글하고 그윽한 음색을 가지고 있어 주로 재즈에서 많이 사용된다. 이 악기의 대표주자로는 재즈 뮤지션 척 맨지오니<sup>Chuck Mangione</sup>가 유명하며 'Children of Sanchez' OST 음반에서 들을 수 있다. 이 앨범의 두 번째 곡 'Lullaby'를 이 악기로 들어도 잠에 취할 만큼 전혀 손색없는 포근하고 아늑한 선율이 압권이다.



플루겔호른 / yamaha.com



\*The above diagram shows the actual notes that each instrument can produce.

\*The black triangle represents Middle C on the piano.

트럼펫의 종류와 음역대 / yamaha.com

## 트럼펫에 관련한 뒷이야기

### 배우기 어려운 악기

밸브가 3개 밖에 없어서 쉬워 보이는 악기로 보이지만 결코 만만한 악기가 아니다. 일단 소리를 내는 것조차 힘들고 설령 소리를 내더라도 높은 고음으로 올라가면서 거의 포기하게 된다. 게다가 커다란 폐활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소

위 뻥사리(squeak)가 잘 나는 악기라 엄청난 연습 시간을 할애해야 하며, 동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연주해야 하는 악기이다.

### 트럼페터

보통 악기의 연주자를 부를 때 '-ist'를 붙인다. 예를 들면 바이올리니스트, 피아니스트, 오보이스트 등으로 부른다. 하지만 트럼펫은 트럼피스트가 아니라 트럼페터라고 부른다. 요즘은 前 미국대통령 트럼프의 추종자를 트럼피스트라고 부른다고 한다.

### 루이 암스트롱

영화 '굿모닝 베트남'에서 흘러나오는 곡 'What a wonderful world'로 유명한 루이 암스트롱은 걸쭉하고 구수한 목소리의 가수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사실 트럼펫 연주의 대가로 스윙재즈 시대를 풍미했으며 재즈의 대중화에 큰 업적을 이룬 인물이다. 그는 평생을 트럼펫을 연주하면서 입술이 찢어지고 아물기를 반복하다 보니 거칠고 딱딱할 뿐 아니라 사이즈도 커져서 큰 입을 뜻하는 새치모<sup>Satchmo</sup>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동명 타이틀 앨범도 발매하였다.



루이 암스트롱 / mentalfloss.com

### 어마무시한 순환호흡

윈드악기는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복식호흡과 순환호흡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Trombone Shorty가 예명인 Troy Andrews의 유튜브 영상으로 2분 34초부터 경악할만한 순환호흡을 감상해보자. 그는 마치 두꺼비처럼 볼을 잔뜩 부풀려서 바람을 불어넣고 동시에 코로 호흡을 마시는데 몇 분간을 끊어지지 않고 연주하는 모습에 보는 사람이 쓰러질 지경이다.



Troy Andrews의 순환호흡 / 유튜브

### 금관악기의 마우스피스 형태

- ① 컵형 : 트럼펫, 코넷, 트롬본, 튜바 등
- ② 깔때기형 : 프렌치 호른



컵형 마우스피스 / heidmusic.com



깔때기형 마우스피스 / horn guys.com

### 약음기<sub>Mute</sub>

금관악기는 약음기를 달면 소리가 작아지는 효과와 더불어 음색의 변화가 생긴다. 특히 재즈의 경우에는 이런 음색을 선호하여 트럼펫에 뮤트를 달고 연주한다. 약음기의 종류도 용도와 음색에 따라 다양한데 컵 뮤트, 와와 뮤트, 악기 연습용 뮤트 등이 있다.



다양한 약음기 / wwwbw.com

### 트럼펫 영재 콕다경, 윈튼 마살리스를 만나다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이나 멘토를 만났는데 그가 칭찬을 해준다면 어떤 기분일까!!! 트럼펫 영재 콕다경이 내한 공연장에서 유명한 재즈 트럼페터 윈튼 마살리스Wynton Marsalis에게 갑자기 접근하여 즉석으로 연주를 들려준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다경양 그날 밤 잠 못 이루었을 듯...





다경 양과 윈튼 마살리스의 조우 / 유튜브

### 트럼펫 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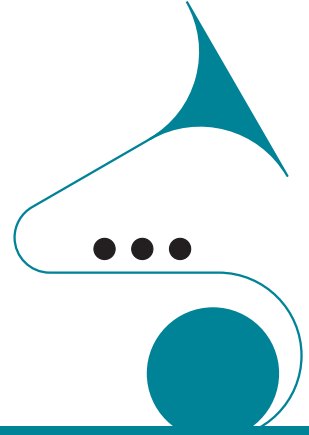
트럼펫은 음량과 음압이 커서 주로 야외에서는 다이내믹 마이크로 픽업한다. 연주자가 모션이 클 경우에는 클립 마이크를 벨에 장착하여 픽업한다.



다이내믹 마이크 / soundcloud.com



클립 마이크 / mccormicksnet.com



### 트럼펫의 음원들



엘리스 발숨 - 하이트 트럼펫 협주곡 3악장



Herald Trumpets



Bugler's Dream Olympic Fanfare



내추럴 트럼펫  
Telemann: Trumpet Concerto: I. Adagio



Piston vs Rotary Trumpet Comparison



Water Keys



Demonstration of Various Trumpets



Chuck Mangione - Lullabye



Louis Armstrong - Nobody Knows the Trouble I've Seen



Trombone Shorty AMAZING circular breathing



Trumpet Mute Demonstration



트럼펫 영재 광대경, 윈튼 마살리스를 만나다



How to choose the best mic for wind instruments

이것으로 '오케스트라 악기와 함께' 금관악기군에서 첫 번째 주자 트럼펫을 마치게 되었다. 다음에는 금관악기의 두 번째 주자로 연주하는 모습이 멋진 트롬본이 연재된다. 🎺